

인 권 · 시 민 사 회 · 종 교 계 공 동 기 자 회 견 문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양우권·배재형 열사의 죽음 책임져라. 대만영풍그룹-한국EG테크 성실교섭 촉구한다!

날 짜 2015. 6. 11. (총 3 쪽)

기 자 회 견 문

양우권·배재형 열사의 죽음 책임져라. 대만영풍그룹-한국EG테크 성실교섭 촉구한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업들은 돈벌이를 위해, 기업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람의 권리와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양심과 인권의 원칙,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인 EG테크는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 양우권을 조직적으로 왕따하고, 격리, 감시, 차별, 징계, 부당해고를 일삼았습니다. 양우권 씨는 온갖 괴롭힘과 인권유린에 시달린 끝에 결국 지난 5월 10일 “저를 화장하여 제철소 1문 앞에 뿌려 주십시오.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날아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보렵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기 하이디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84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3월 31일 대규모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뒤 고부가가치 특허 기술을 대만 모기업으로 빼가려는 의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으로 노동자 배재형씨 또한 지난 5월 11일 스스로 목을 매 숨

인 권 · 시 민 사 회 · 종 교 계

공 동 기 자 회 견 문

졌습니다. 열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꼭 이겨주세요. 악질 자본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라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자본의 탐욕 때문에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건 기업의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두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사과조차, 협상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노동자의 동료들은 모기업이 있는 서울과 대만에서 곡기를 끊고 저항하는 등 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위로를 받아야 할 유가족들도 회사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하이드스 모기업이 있는 대만까지 원정투쟁을 떠났지만 외려 대만 정부는 해고노동자들과 열사의 부인을 강제 연행 후 억류하다 기어코 추방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만 영풍그룹과 한국의 EG테크는 하루라도 빨리 배재형, 양우권 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들의 냉혹한 이윤추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두 노동자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원했던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하겠습니다.

2015. 6. 11.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생태지평,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환경운동연합, 홍사단,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

인 권 · 시 민 사 회 · 종 교 계

공 동 기 자 회 견 문

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종교]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예수살기, 촛불교회

[인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